

41. 믿음과 사명

신앙고백

찬 송 :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기 도 : 말은이

말 씀 : 히브리서 11:23-26

말씀묵상

흔히 지금의 사회를 물질만능사회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물질을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그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더 많은 물질과 편안한 삶을 위해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히11:36-38). 맞서 싸워 인내하였고 환란을 이기고 연단되어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롬5:3-4)

1.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기 위해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출1:16-22).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해 바로의 계락을 꺾으셨습니다(출1:20). 또한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는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 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고전1:27).

2.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잘생긴’을 의미하는데, 이는 외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적 ‘경건함’, ‘존귀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에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3. 약속을 믿는 자가 사명을 이룹니다.

모세의 관심은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표현합니다(히11:13).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능동적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가 마침내 사명을 이룹니다.

맺는말.

모세는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습니다. 새 언약 안에 사는 우리는 더욱 힘써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적용

1.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왕인지, 하나님인지 점검해봅시다.
2.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암송합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국내 미자립교회를 후원합니다.

2. 예배 일정

대면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3. 성경통독 강해

임창세목사의 성경통독강해를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주일은 제외)

4. 코로나 종식과 교회개혁, 예배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코로나 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종식과 교회개혁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해서 하루 10분씩 전교인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를 위한 남신도 릴레이 기도회

남신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6. 안수집사 모임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7. 목장별 전화 및 화상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과 화상심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8. 개척교회를 위한 선교헌금

코로나19로 인해 개척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은 개척교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오니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입원 - 이해영 권사(10/26, 아산병원)

헌물 - 최광순 권사 가정에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부목사 : 양미화

지 휘 자 : 이영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 주 자 : 홍지혜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제116권 제43호

2020. 10. 25

The Six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눅 5: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27장 다같이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교독문 62. 시편 143편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83장 다같이

1부:박영애 권사
2부:최광순 권사
3부:하민성 청년

성경봉독 마태복음 3장 13-17절(신약4) 인도자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영상
말씀 주만 바라볼찌라(8) 임창세 목사
내 기뻐하는 자라

1월 봉사위원

안내위원	1부 : 2부 :	다음 주일 예배 기도
헌금위원	1부 : 김정예 2부 : 신연호 안상분	1부 : 나차금 권사 2부 : 전옥자 권사 3부 : 윤경수 청년
식당봉사	이번주 : 다음주 :	

결단찬양 보혈을 지나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송영 부르신 곳에서 다같이
※축도 임창세 목사
□ 3부 설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마5:6) 양미화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예배를 잠정 중단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17절】

¹³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¹⁴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¹⁵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¹⁶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¹⁷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배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0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동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세계선교회
김영생(인도네시아) 홍콩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남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족여신도회 선교 : 아시아 주미교회(주혜숙)

목장모임보고						
◆ 성서일독 통독자 명단(13주) 63명						
강복순	곽삼화	김금란	김남일	김명숙	김영선	김예진
김예찬	김용수	김재정	김정예	김향순	김현섭	김효영
나차금	남영옥	박기자	박심원	박영애	박옥년	박정아
박춘남	서소영	석장환	신연호	신영숙	안상분	안순조
양미화	우순희	우희연	유인숙	유향숙	윤종찬	이경미
이만순	이미숙	이상설	이순자	이혜정	임근실	임신자
임완민	임한옥	장영미	전명숙	전상기	전옥자	정광옥
정순진	정영숙	정장환	정재하	주리에	주영순	주종찬
최광순	최미연	최문주	하연주	한규봉	홍지현	황영옥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119:105)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강윤지 강호성, 김지운 김명숙 김수매 김옥림 박정순 박해영, 신동희 서인순
석장환 신한래 안홍옥 우순희 유병주, 임신자 이복음 이수주, 박기자 이영희
임근진, 최광순 임수정 임지은 정재현 정정희 최진수, 최영란 홍춘근, 한춘자
무명

◆ 감사헌금
임창세, 주리에 김옥임 남영옥 박상민, 김영옥 손미자 신연호, 안상분 우순희
유병희 윤종찬 이말자 이순자 박재락 이혜정 임지영 정영숙 최미연 무명4

◆ 선교헌금
백영훈, 백영준 임근실

◆ 건축헌금
박심원, 윤관순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기관헌금	목장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540,000	4,209,000	740,000			100,000	12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